



## 한국과 캄보디아의 산업발전

- 한국과 캄보디아의 산업발전
- 캄보디아 육계산업
- 캄보디아 육계산업 발전 방안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애국지사들의 피나는 독립운동과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광복을 맞이하였다. 36년 만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희망찬 발전을 위한 날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친일파 청산,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의 극심한 이념논쟁에 휘말리면서 1950년 6.25한국전쟁이 일어났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3년간의 기나긴 전쟁으로 전기, 도로, 국토와 산업시설 등의 황폐화와 국민들의 절망과 상실감만 남기고 1953년 휴전이 협정되었다.

1953년 우리나라 GNP(1인당 국민소득)는 67달러였다.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광복을 했고 광복 후 혼란기와 전쟁을 통해서 피폐해질 대로 폐허가 된 한국의 경제는 암울했다.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 전기, 도로, 통신 국가기간산업은 폐허자채였다. 한국은 이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1차 경제개발계획 1차년도인 1961년에 GNP가 85달러였던 국가경제는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경제기반의 토대를 갖추면서 10년 만에 1961년 대비 GNP가 3배정도 성장하여 1970년에 255달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중화학공업 육성과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한



박 규 식

성남시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사



▲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프놈펜 시내 전경

국은 GNP 1차 목표였던 1,000달러 달성 목표를 1977년에 달성하였다. 88올림픽 계임을 개최한 1988년에는 4,653달러를 달성하고 이후 세계경제 호조와 중화학과 반도체 등 IT산업이 경제를 주도하던 1995년 우리나라 GNP는 11,735달러로 온 국민의 선진국 대열 진입의 염원을 모아 1만달러를 달성했다. 한국경제는 한차례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주춤했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2006년에는 2만달러에 진입하여 20,823달러를 달성하더니 2014년에는 28,180달러를 기록하였다.

올해 2015년도에는 3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새마을운동과 계획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6.25 전쟁 폐허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칭송받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전세계 200여 나라 중 2014년 1인당 GDP가 29위의 선진국이 되었

고, GDP(국내총생산)기준 세계 11위의 선진국가가 되었다. OECD 국가로서 세계정상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도 경제성장은 농업과 식품분야에서도 크나큰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왔다. 축산분야에서는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80년 11.3kg에서 2014년 42.7kg으로 378%나 소비량이 증가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 육류 소비량이 100kg대 소비량을 보이는 것과는 아직은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유 1인당 소비량도 1980년 10.8kg에서 2013년 71.6kg로 약 700% 이상 증가하여 경제성장과 축산식품의 발전에도 기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모든 국가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닭 사육현장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개도국 선진농업기술보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국제협력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2015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30일 정도 연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연수기간 동안 수행할 분야는 Animal & Meat Science로 캄보디아 축산에 대해서 살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현대사를 겪은 나라로 프랑스에 식민지를 겪었고, 극심한 이데올로기에 휩싸이면서 급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킬링필드(Killing field)라는 캄보디아 역사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폴 포트에 의해 자행된 캄보디아 지식인 및 기술자 등 국민의 200만 학살이라는 엄청난 혼란의 역사를 겪었고 세계 선진국가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는 경제적으로는 최빈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캄보디아도 아픈 역사를 딛고 30여년 이상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인 상황을 겪고

있지만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경제 회복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 경제 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년 경제성장률이 7% 이상 고도의 성장을 하는 나라로 2014년 1인당 국민소득(GDN)이 1,046달러로 우리나라 1977년의 1,047달러와 비슷한 시기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약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캄보디아도 점차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과거 한국이 경제성장하면서 보여주었던 가난하고 어려운 농촌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버리고 프놈펜과 같은 대도시로 유입되고 있다. 즉 캄보디아 인구 1,520만명중 수도인 프놈펜에 인구 유입이 계속 이루어져 2014년도에는 132만명의 인구가 이동하고 있음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적인 예로 봉제공장 근로자로 1달에 120달러 정도를 받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유입은 주택, 교통, 토지, 도시계획 등이 뒷받침 되지 않아 많은 도시문제 등 캄보디아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캄보디아도 여러 경제부문에서 발전하고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다양한 변화속에서 캄보디아의 축산분야 육계산업(Broiler Industry)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양계**